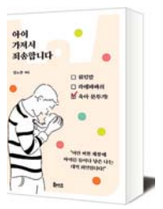
새 책

▶글 나와라, 뚝딱!(부복정 글·한항선 그림)=구좌읍 한동리에서 전해져오는 도깨비 설화를 새로 꾸며 그림책으로 펴냈다. 실제 인물인 조선 말기 유학자 부계웅, '부 훈장'이 주인공이다. 도깨비를 자유자재로 부리는 부 훈장에게 아기 도깨비 호야가 글을 배우면서 벌어지는 일이 흥미진진하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저자가 제주어로 지어 표준어와 함께 실은 이야기는 지역의 문화와 설화, 제주어의 가치를 전한다. 한그루. 1만5000원.



▶아이 가져서 죄송합니다(김노향 지음)=14년차 경제지 기자인 저자는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닌다.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직장맘'으로 살기란 쉽지 않다. 직장맘에 대한 배려를 기대할 수 없는 회사 문화와 보이지 않는 아이 혐오까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며 느낀 여러 감정과 고민을 책에 풀어놓았다. 루아크. 1만3500원.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이범헌 지음)=40여 년을 화가로 살았고 현재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인 저자가 문화예술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고민해 온 흔적이다. 문화예술 향유 권리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왜 예술인 복지가 우선돼야 하는지 등을 되물으며 찬찬히 나간다. 예술노동에 대한 시각 전환을 촉구하고 문화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문화예술인 유니언을 만들자는 제안으로 뻗어간다. 밈. 1만6000원.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로셀라 포스토리노 지음, 김지우 옮김)=히틀러가 맛볼 음식을 시식했던 실존 인물인 마고 뵐크의 인터뷰를 계기로 쓰인 책은 주인공 로자가 '스스로 악을 행하는 자'와 '악의 없이 악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간'의 틈에서 삶을 잇는 과정을 그렸다. 전쟁의 단면과 이면, 인간의 모순된 욕망을 예리하게 포착해 냈다. 문예출판사. 1만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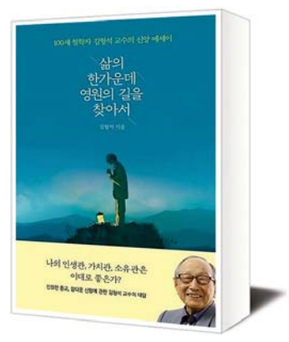
▶바나나 껍질만 쓰면 괜찮아(매슈 그레이 구블러 지음·최현경 옮김)=초록색 피부에 머리카락도 세 가닥뿐인 주인공 못난이는 놀림을 당할까 두려워 땅속에 숨어산다. 1년에 딱 하루, 밖으로 나가는 축제 때도 바나나 껍질을 쓰고 모습을 숨기기 바쁘다. 그랬던 못난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통해 저만의 개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근사한지 깨닫게 하는 이야기. 그레이트북스. 1만4000원.

▶이 상한 도서관장의 이상한 도서관(윤여림 글·이나래 그림)='이상한'과 '이 상한', '다정하고'와 '다 정하고'. 똑같은 글자에 띄어쓰기 하나만 들어갔을 뿐인데 의미가 확 달라진다. 재미있는 놀이처럼 띄어쓰기를 익힐 수 있도록 글을 썼다. 재밌는 상상력이 가득한 '이상한 도서관'에서 신나게 놀면서 다양한 문장을 통해 띄어쓰기 공부를 할 수 있다. 천개의바람. 1만2000원.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생의 고통 모른다면 종교는 불필요하다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신앙 에세이



삶의 피안에 있는 영원
신을 만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유교와 사이비 종교까지 합쳐 양적으로 가장 많은 종교인이 분포한 나라다. 그 숱한 종교인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 나아지고 있을까. 2020년 만100세를 맞은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새해 독자들 앞에 내놓은 신앙 에세이는 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삶의 한가운데 영원의 길을 찾아서'란 제목을 단 에세이는 종교와 인생, 신앙생활의 본질적 가치를 다뤘다. 종교는 왜 필요한가, 종교적 세계관과 인생관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등에 대한 문제를 풀어 밝혀놓았다.

그는 대표적인 종교들이 수십 세기 동안 시련과 변화를 겪고 때로 미신적 요소까지 배제하지 못했으나 그 생명력을 오래 유지해 온 배경에 인간애와 인간 목적관에 입각한 휴머니즘적 자기 동일성이 있다고 봤다. 그것이 없는 종교는 버림 받았다. 불교는 약화되어도 자비로운 마음은 자라야 하고, 유교의 인습적인 행사는 사라져도 어진 마음의 빛이 소멸되어서는 안된다. 교회 수는 줄어들어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립할 수 있었다.

때때로 20대 전후의 젊은 독자들이 100세 철학자인 그에게 묻는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 역시 일찍부터 그런 물음을 안고 자랐다.

저자는 자기 성장과 자아 완성의 책임, 책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며 그 사회적 의미를 남기는 일, 인간에 대한 봉사를 인생의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과정을 밟기 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한다. 비록 산꼭대기에 오르지 못했더라도 접근해가는 과정에서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만일 이같은 인생의 목적이 주어졌음에도 죽음 뒤에는 무엇이 오는가, 내 존재가 사라지고 말면 목적도 없는 것이 아닌가하고 반문하는 이가 있다면 그 대답을 보류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영원을 바라며 유한 속에서 무한을 염원하는 인생의 피안에 속하기 때문이다. 삶의 피안에 있는 영원, 그것은 다름아닌 신앙과 종교적 체험의 문제다.

저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 즉 생의 고통을 자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학이나 도덕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신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열림원. 1만5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비교와 경쟁 사라진 자리에 포용과 존중

최선양의 '프랑스 학교에 보내길 잘했어'

한국에서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했던 그는 남편과 함께 아이 둘을 데리고 방글라데시로 떠났다. 그곳에서 6년을 보냈다. 지금은 인도에 둥지를 틀어 살고 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가난한 나라'인 그곳에서 그는 행복한 부모를 꿈꾸며 지낸다. 두 나라에 있는 국제학교인 프랑스 학교가 준 선물이었다. 비교와 경쟁을 모른 채 포용과 존중을 배우는 두 아이의 엄마인 최선양씨의 '프랑스 학교에 보내길 잘했어'는 그에 얽힌 경험을 입학 정보 등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그가 프랑스 학교에서 제일 먼저 놀란 일은 상장이 없다는 거였다. 백일장이나 체육대회도 없고 수학이나 과학 경시대회도 없다. 친구들과 순위를 다투는 활동은 행해지지 않는다.

선행 학습도 없다. 오로지 복습만 반복 학습만 있다. 그 과정을 거치며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빠르면 개별 과제를 내준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리면 과한 과제를 주지 않았다.

거기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잘 이해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었다. 1학년 담임이었던 교사는 인도 뭄바이 프랑스 학교로 전학온 아이가 입을 닫고 침묵할 때 오히려 부모를 위로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조금씩 성장할거예요. 프랑스어를 못하던 미국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야 입이 트였어요. 얼마 전까지도 서툴렀는데 말이죠. 잘 기다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자는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한국 교육이 조금은 바뀌길 바란다면서 프랑스 교육을 겪으면서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털어놓는다. "더 이상 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자.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 동조하지 말자. 내 아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되돌아보자." 마더북스. 1만4800원.

진선희기자

이 책 강정효의 '… 아름다움 너머'

관광책자엔 없는 제주의 삶과 사연

한라산을 오른 감흥을 실어 시인묵객들이 남겨 놓은 마애명.

신들의 고향·한라산의 가치
풍광의 겉 아닌 속살 이야기
80여 개 주제로 풀어쓴 제주

그는 '일만팔천 신들의 고향' 제주를 불러내는 일부터 시작했다. 거친 환경을 헤쳐가야 하는 어려움이 그만큼 컸기에 제주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청했으리라. 유네스코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나 제주 곳곳 신당들이 과거부터 이어져온 문화재를 넘어 지금, 여기 제주의 삶과 연결지어 읽어야 하는 이유다.

얼마 전 제주민예총 이사장 임기를 마친 강정효 작가의 '제주, 아름다움 너머'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생까지 살펴야 진짜 제주가 보인다고 말한다. 신문 연재글 등 80편 넘게 실었는데 주제별로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는 등 간명하게 풀어썼다. 취재·사진기자를 지낸 이력으로 글에 더해진 사진은 이해를 돕는다.

그는 여전히 제주 관광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일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관광으로부터 관광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개발을 공부했다"는 그는 경승이나 문화재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살아온 이들의 사연에 관심을 가질 때 제주 자원들이 제대로 보존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풍광의 겉이 아닌 속살을 들여다봤다. 재물의 신 칠성, 태풍에 쓰러진 신목, 제주도의 관개수로, 가뭄 극복 염원이 담긴 기우제단, 댓돌과 폭낭, 단산과 거욱대, 제주의 골목길을 일컫는 올레 등을 지나 제주4·3 잃어버린 마을, 정뜨르비행장, 제주도의 장두 이재수, 일제 강제징용의 현장인 동굴진지, 제주역사의 굴곡이 담긴 새별오름, 송악산과 알뜨르까지 닿는다. 제주의 또다른 이름인 한라산을 둘러싼 개발 논란과 식생, 전설도 10여 편의 글로 묶어냈다. 조선시대 제주 최고의 명승으로 꼽혔던 안덕계곡의 흥망성쇠를 다룬 대목은 지속가능한 '관광지' 운영에 시사점을 준다.

"훗날 여러분이 다시 찾고 싶은 제주가 온전히 이어지길 바란다면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주 관광책자엔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로 책을 엮으며 그가 건넨 말이다. 한그루. 4만원.

진선희기자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서귀포시 부시장

김 영 진

서귀포시 부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영진을 사랑하는 사람들

축하드립니다

승 진 부이사관 — 이 양 문

승 진 서 기 관 — 부 준 배

취 임 서귀포시 체육회장 — 김 태 문

승진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총동문회

회 장 홍 성 완 외 회원일동